〈인문사회계열〉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배경 및 해설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문제 1]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해한 뒤 작품의 특성과 작가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을 읽고 분석한 뒤 종합하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로, 작품 이해와 수용의 기본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제시문 (가)는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이며, 제시문 (나)는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이다. (가)와 (나) 모두 1965년에 창작된 작품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지식인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지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고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시인의 '자조적' 표현을 통해 극대화되고 있다. (나)는 어느 날 밤 서울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동행하게 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60년대의 도시적 삶의 황량함과 폐쇄성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통해 사회의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비극적 삶을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제 1]에서는 두 작품의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1960년대 산업화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표현 방법의 특성을 분석하여 서술하기를 요구했다.

2. 예시 답안

(가)와 (나)는 19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가 야기한 인간 소외와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의 '나'는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옹졸함을 자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낸다. 이 시에서의 '자조적'인 표현은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자 그 불합리한 사회에 맞서지 못하는 자기반성을 위한 표현이다. 한편 (나)는 근대적 도시 환경 속에 처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풍경화라 할 수 있다. 작가가 등장인물들을 '안' '사내' 등의 익명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객관적 거리 속에서 작중 인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은 이러한 작가의식의 산물이다. 이런 익명성을 통해, 공동체적 정서가 사라진 도시 생활 속에서의 대화 및 인간관계의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내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사내를 홀로 방치하는 '안'과 그의 의견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나'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산업화 현상 및 그에 따른 인간 소외 등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출제 근거

문영진 외, 『고등학교 국어Ⅱ』, 창비, 2017, 106~131쪽.
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 신사고 2018, 238~243쪽.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2014, 169~185쪽.

[문제 2]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20세기 이래 근대적인 역사 서술의 태동 및 강점 이후 일본인들에 의한 한국사 왜곡과 그 극복 노력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강점 이후 침략과 식민지배를 위해 한국사를 왜곡했던 식민사학에 맞서 민족사학, 사회경제사학 등의 입장에서 주체적이고 법칙적인 한국사 서술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8종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는 사항이다. (가)는 식민사학의 핵심으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대한 설명이다. (나), (다), (라)는 박은식의 『한국통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 각각의 서문 내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자들의 역사관을 보여준다. 여기서 (나), (다)는 '우리 조상', '한국'의 '정신', '아'로서 '조선민족'을 강조하고 있으며, (라)는 한국사를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법칙', '세계사적·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거해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2]는 지문을 읽고 식민사학 및 민족사학·사회경제사학의 특징과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가, 또 민족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에 입각한 역사 서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예시 답안

식민사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체되어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힘, 바로 타율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한국사의 발전적인 양상을 부정하는 정체성론과 그 주체성을 부정하는 타율성론을 중심으로 한다.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선학들은 부단히 노력하였다. 역사 서술을 통해 한국의 '정신'을 보존해야 한다는 (나)와 '아'로서 '조선민족'이 외부 '비아'에 대해 벌인 투쟁과 승리를 강조하는 (다)는 한국사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와 (다)는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한편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라)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과 상반된 주장이라 하겠다. 하지만 (나)에서 강조하는 '정신'은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렵고, (다)의 경우 주체성을 강조할수록 투쟁에서 자민족의 승리만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사를 구체적 실체가 없는 관념론이나 국수주의에 빠진 역사 왜곡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라)의 경우, 세계사의 발전 법칙이라는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도식적인 역사 서술이 되어버려 한국사의 개성과 특성을 몰각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3. 출제 근거

도면회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4, 305쪽
왕현종 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4, 241쪽.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교육, 2014, 293쪽.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326쪽.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4, 284쪽.

[문제 3]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예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감상하는 데 대한 사유와 관점은 예술과 윤리·사상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다. [문제 3]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시문 (가)는 앤디 워홀의 작품 「캠벨 수프 캔」과 팝아트의 등장 배경과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관점과 이와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으로서, 예술이 한 사회 공동체의 윤리와 선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전달한다. (다)는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 대한 소개글로서 한 예술작품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순수예술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라)는 피카소의 그림인 「아비뇽의 처녀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입체파의 특성과 예술작품이 텍스트 내재적으로 갖는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나), (다), (라)가 제시하는 상이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가)에서 제시된 작품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잘 적용하여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예시 답안

앤디 워홀의 작품 「캠벨 수프 캔」의 예술적 가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은 팝아트의 초기 작품으로서 1960년대 대중매체와 소비문화가 만개하였던 미국 사회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다. 이는 하우저의 주장에서와 같이, 이 예술품의 가치가 작품이 탄생한 사회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평가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평가하는 글에서와 같이,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작품이 지닌 독특한 원근법과 명암법, 색채 사용 방식들과 같은 내재적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그 작품이 지닌 혁신적 측면을 드러낼 수도 있다. 실제 워홀의 작품은 당대에 대량 생산되던 대표적 상품인 캠벨 수프 캔을 실크 스크린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팝아트라는 혁신적인 예술양식을 창안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워홀의 작품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문화의 진부함과 획일성 등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예술작품이 사회 선과 윤리적 측면에 기여하는 도덕적 가치를 드러낸다.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가치로서, 예술작품은 인간과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며 사회 내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출제 근거

최상훈 외, 『세계사』, 교학사, 2013, 283쪽.
김선욱 외, 『윤리와 사상』, 금성출판사, 2013, 123쪽.
정민 외, 『고전』, 해냄에듀, 2013, 278쪽.
정민 외, 『고전』, 해냄에듀, 2013, 251쪽.